澗松의 푸로필

田 孝 準

筆者는 十餘星霜을 바늘 간데 실 가듯이 北壇莊(城北洞 澗松邸宅) 한울안에서 居處하였고 六·二五動亂을 계기로 진저리 나는 逆境속에서 또한 선생을 모시고 동고동락 끝에 최근에 이르렀음으로 그 동안 선생에게서 겪고 얻은 바 間談屑話나마 抄하려 한다。

先生은 眉目이 秀麗하고 섬섬 옥수를 연상케 하는 여인도 오히려 미치기 어려울만치 살결이 희고 고은 貴人型이었다。특히 中學時節에는 美顔의 少年이었다고 한다。그 위에 富者宅 貴童子요、運動은 野球 蹴球 等 萬能選手였다고 한다。或者는 先生을 論하되 時間을 超越한 분이라 하고 어떤 이는 낮과 밤을 바꾸어서 生活한다는데 하고 반 호기심으로 筆者의 눈치를 더듬기도 하였다。先生은 公約아닌 私事에 悠悠自適을 즐기는 수가 往往 있었던 것도 事實이요 한 때 身病으로 非正常的인 健康狀態에 빠져서 苦憫하던 時節에 우연한 계기로 밤과 낮이 混動되었던 것도 浪說은 아니지만 이는 이미 還元되지도 옛날이었다。先生은 平素에도 그러하였지만 아무리 급하고 놀라운 일을 당하여도 莫重한 損害가 눈앞에 닥쳐도 罔知所措의 빛을 띄지 않고 얼굴에 內色조차 드러내지 않는다。解放이듬해(一九四六) 京畿地方에는 큰 비로 大洪水를 겪었다。高陽、廣州、楊州等地의 先生의 土地가 많은 被害를 입었고 就中 楊州郡 蘆海面 六十萬坪의 알토란같은 沃土가 거의 千瘡萬痍가 되다시피하여 그 피해는 尤甚하였다。當時 現場實情 報告를 듣는 先生이 얼굴빛하나 변하지 않고 너무나 從容한 態度에 筆者는 一驚을 禁치 못하였다。또 先生은 남과 敵對視하는 일없고 아무리 분한 일이 있어도 怒하는 법도 없었다。그러기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남과 言爭조차 하는것을 못 보았다。무엇 한가지 남부러울 것 없는 선생이지만 便紙를 抄함에 있어 종이 한 장을 조리차 하고 담배를 피시는데 성냥 한개피를 알뜰이 하고 담배를 피고나면 꽁초다운 꽁초가 남는 법이 없다。절약이 이 같이 細心한데까지 미치면서도 社會福祉를 위한 일이라면 巨財를 喜捨하기를 서슴치 않았고 벗과 淸談하는 마당에 술값을 아끼지 않는 先生이었다。하치않은 돌조각 나무토막 하나를 함부로하지 않고 헌 新聞 한 장、묵은 雜誌 한 권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다 피운 담배갑이라도 구기질러서 내버리는 법이 없었다。속종이 겉종이를 따로 정리하여 차국차국 모아 두었다。先生 손에단 들면 비록 폐물일망정 버림을 받는 일이 없었다。數年前의 일이다。난리통에 뭇사람에게 짓밟히고 부서진 수 많은 물건들을 整理하는데 별별 물건이 많았지만 그 중에 뚜껑은 물론 없어지고 밑바닥과 四面의 널도 다 떨어져서 발만 남아 무엇인지 그 형체조차 분간키 어려운 다 부서진 뒤주가 나왔다。일을 거들던 사람들은 火木감 밖에는 달리 소용될데가 없다고 그것을 保管하려는 先生을 웃어댔었다。그러나 周圍 사람들의 이러한 動靜에는 吾不關焉이라는듯이 雜동산이들이 자리잡은 한 구석에 그 뒤주를 모시고야 말았다。

家庭什物은 고사하고 심지어 一木一草에 이르기까지 어떤 구실을 지니고 世上에 생겨났던지 간에 그 本然의 姿態와 使命을 상실시킴이 없도록 항상 銘心하여 凡人이 좀처럼 따르지 못하는 哲理를 몸소 實踐하여 마지않는 先生이었다。

이와 같이 모든 물건을 所重히 여기고 아끼는 先生은 또 書畵骨董 蒐集에 비상한 힘을 기울였고 한국에서 첫손 꼽는 大收藏家로서 許多한 收藏品이 保管 乃至 陳列을 위한 鐵筋으로 된 近代式 훌륭한 건물(城北洞 葆華閣)을 따로 갖었다。이 方面에 對한 先生의 所聞을 들은 京鄕各地의 人士들이 수시로 先生의 문을 두드리고 鑑定을 請한다。拒絕하는 일은 없었지만 滿足한 對答을 얻고 가는 사람도 드물었다。物件의 眞假는 속으로는 다 아는 일이지만 딱 끊어 말하기를 늘 회피하여 大家로서의 老功을 도무지 내세울줄 모르는 까닭이었다。虛衷盛勢가 일수이고 羊頭狗肉을 例事로 아는 世上에 「良賈深藏而若虛」의 겸양지덕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었던가 도리켜 先生을 사모하는 마음과 이야기는 한이 없겠